

**글로벌 전환시대 신남방정책 관점
대외경제협력 전략:
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**

2020. 12. 3.

발표자: 안재빈 (서울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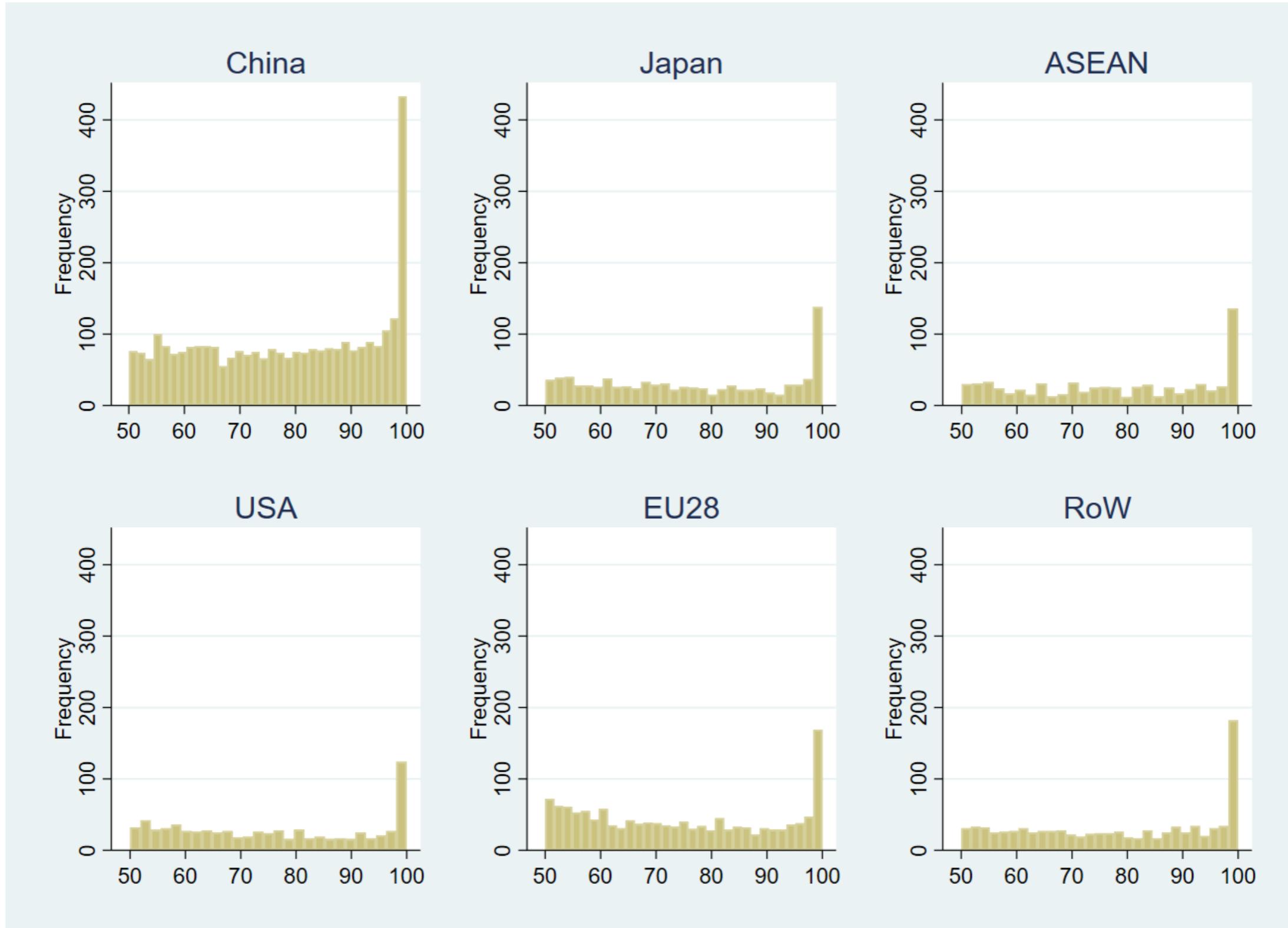
토론자: 정성훈 (KDI)

요약

- 해외직접투자(FDI)를 통한 신남방정책은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음.
 -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최근 FDI 추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
- 국내 기업들의 최근 FDI 추이의 특징
 - 산업 전반에서 과거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지역으로 급속히 전환
 -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공장지로 활용하던 수직적 FDI보다 시장으로써 접근하는 수평적 FDI가 증가 추세
 - 은행/여신업에서는 신남방 지역으로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활발
 - 코로나19로 인한 FDI 감소세에도 신남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고
- 향후 과제
 - 해외진출 장려 및 지원 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의 전략적 상충
 - 신남방 지역의 금융 인프라를 견고하게 할 필요
 - 신남방 지역 내 특정 국가 집중도 해소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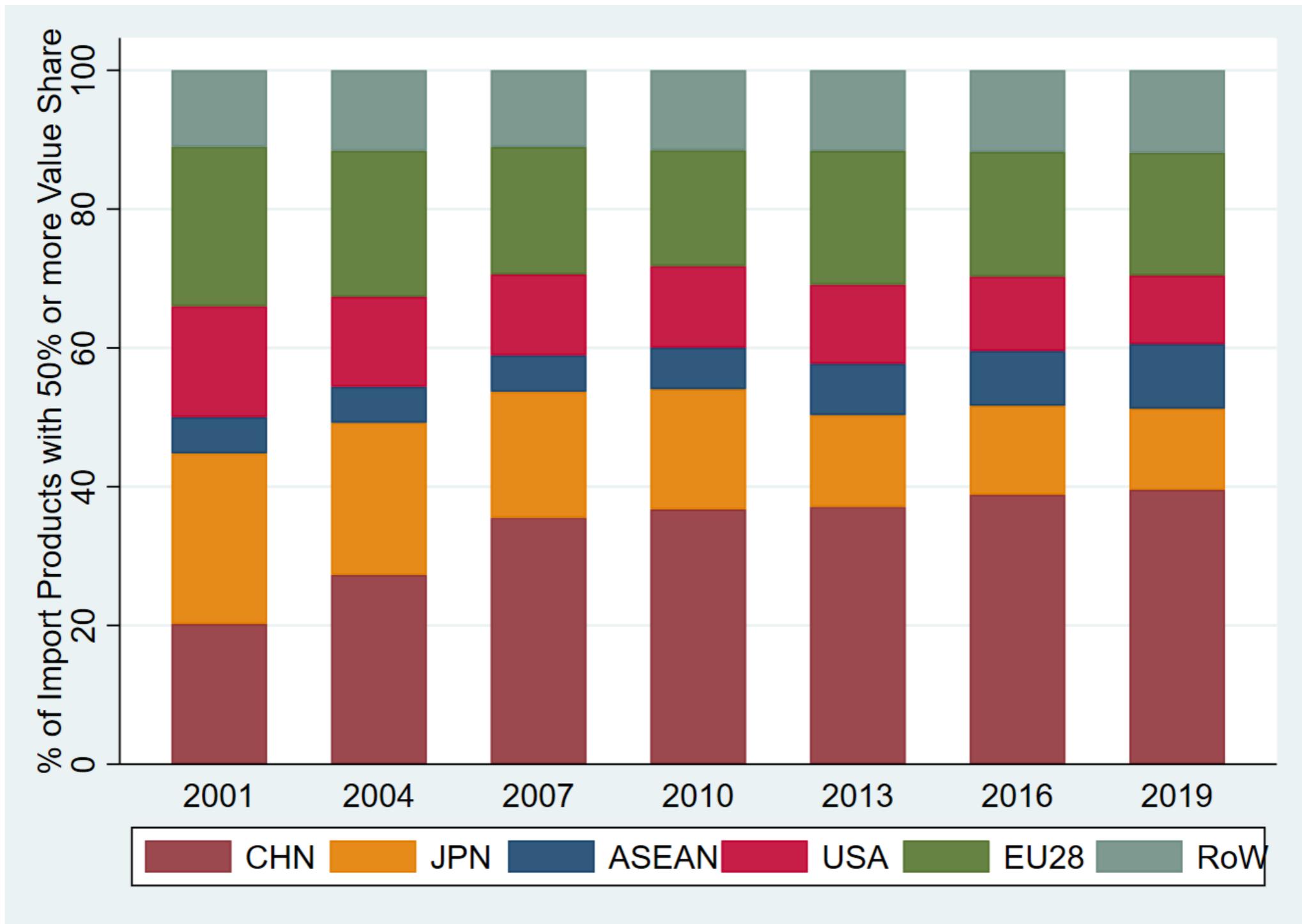
첨언 1: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

- 한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(X축) vs. 품목 수 (Y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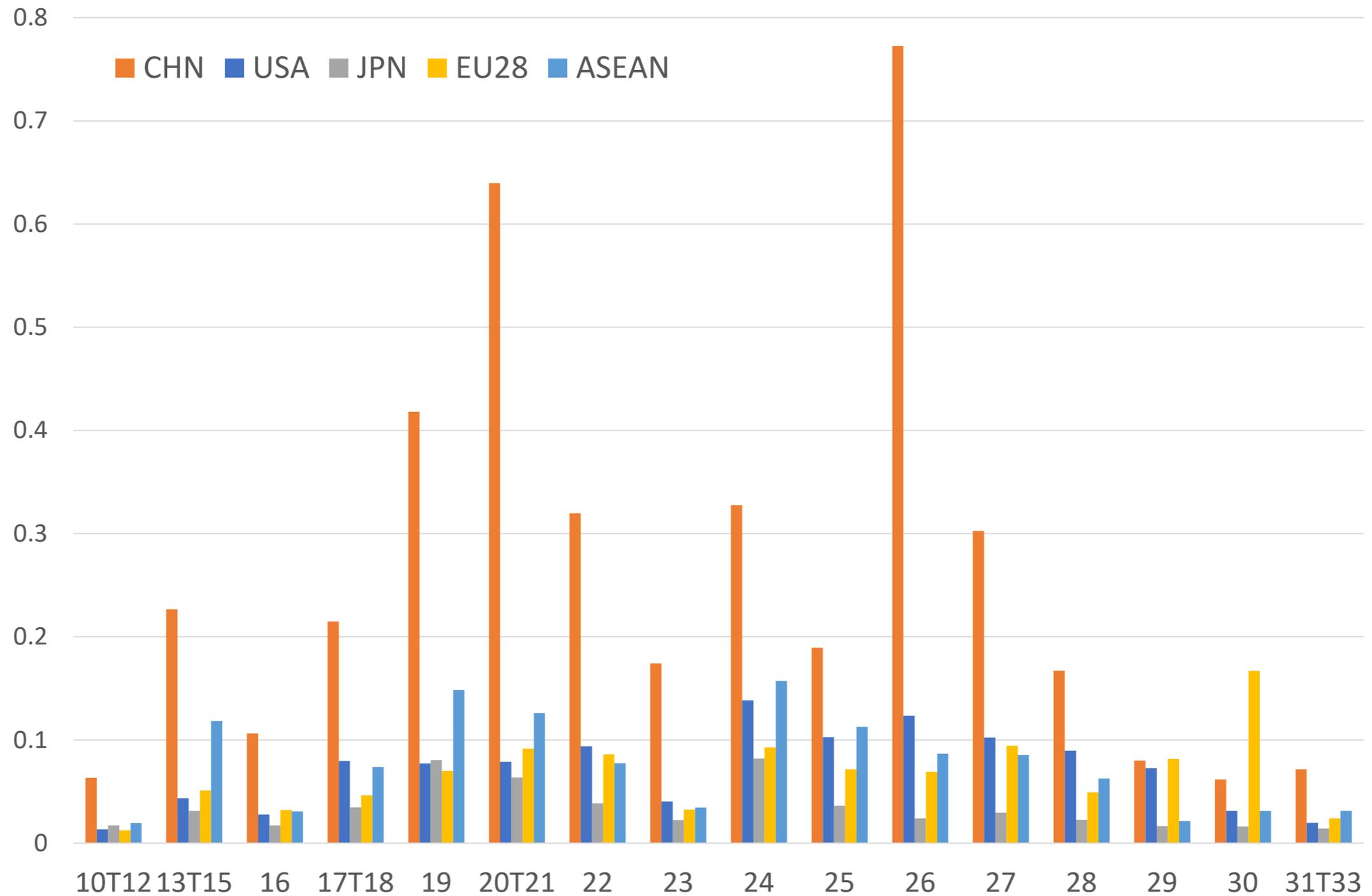
첨언 1: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

-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지역으로 FDI가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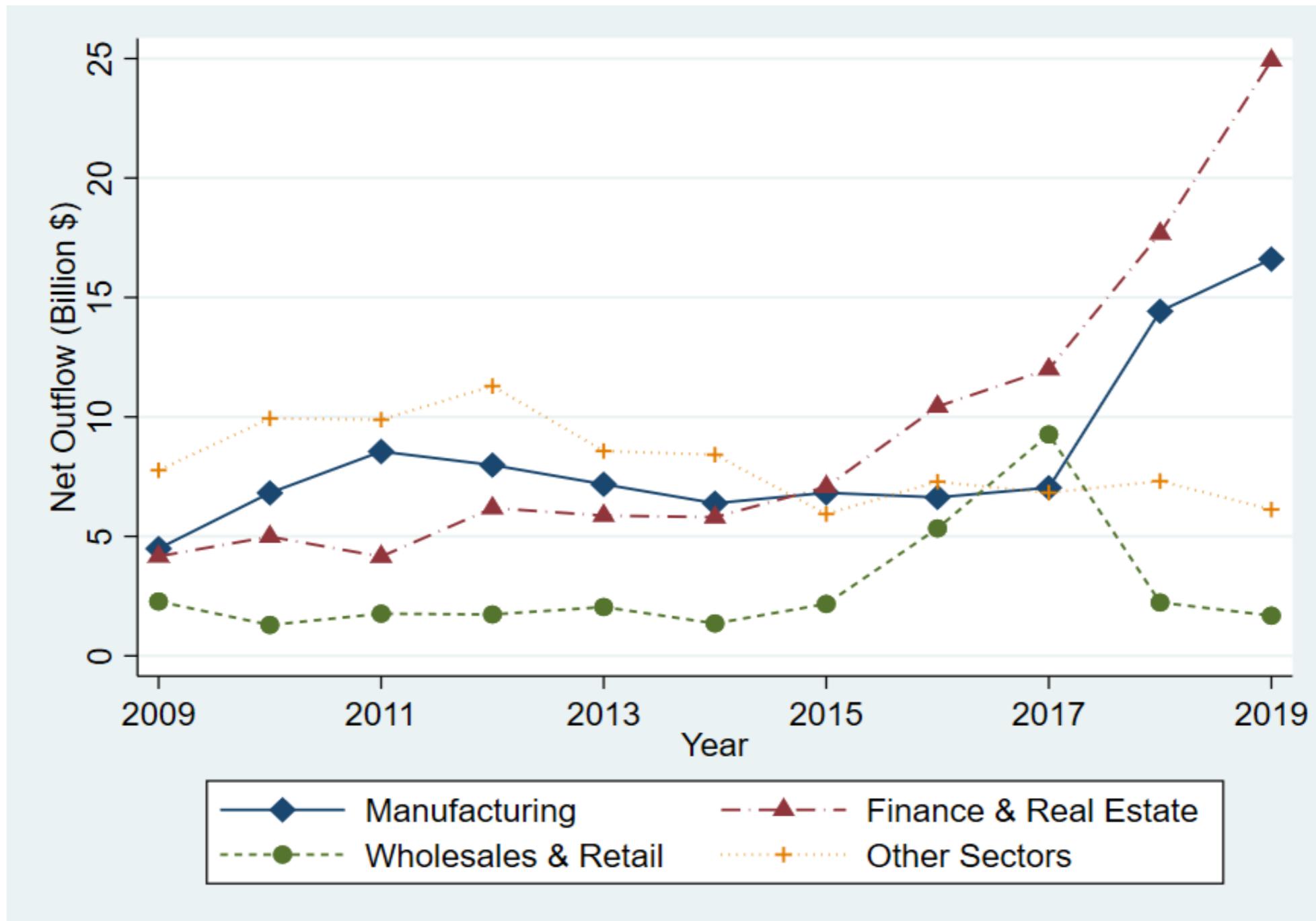
첨언 1: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

■ 국가별 공급 충격의 국내 산업별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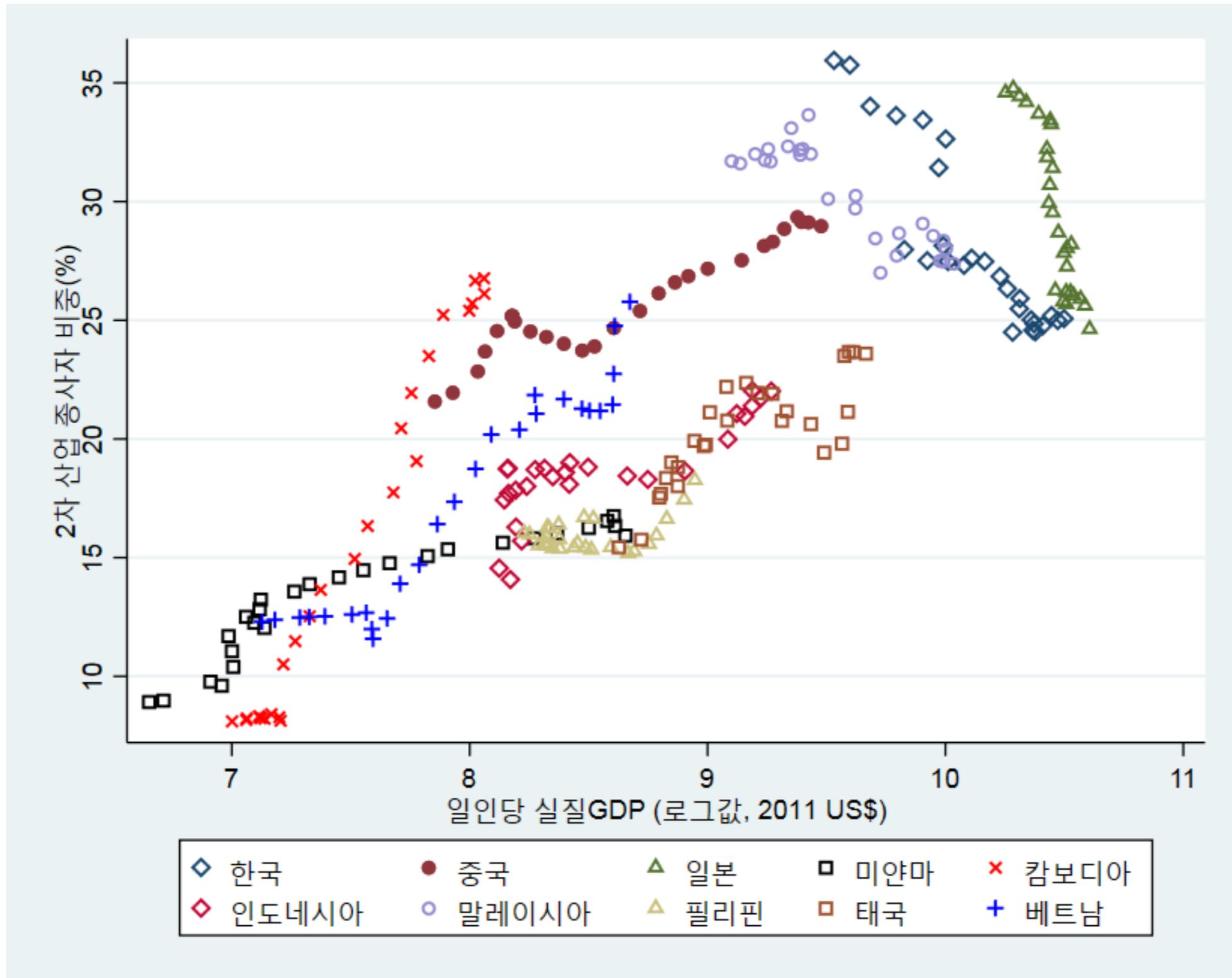
첨언 2: 오프쇼어링 vs. 리쇼어링

- Reshoring 실적은 미미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급증
 - 2013년 유턴법 시행 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80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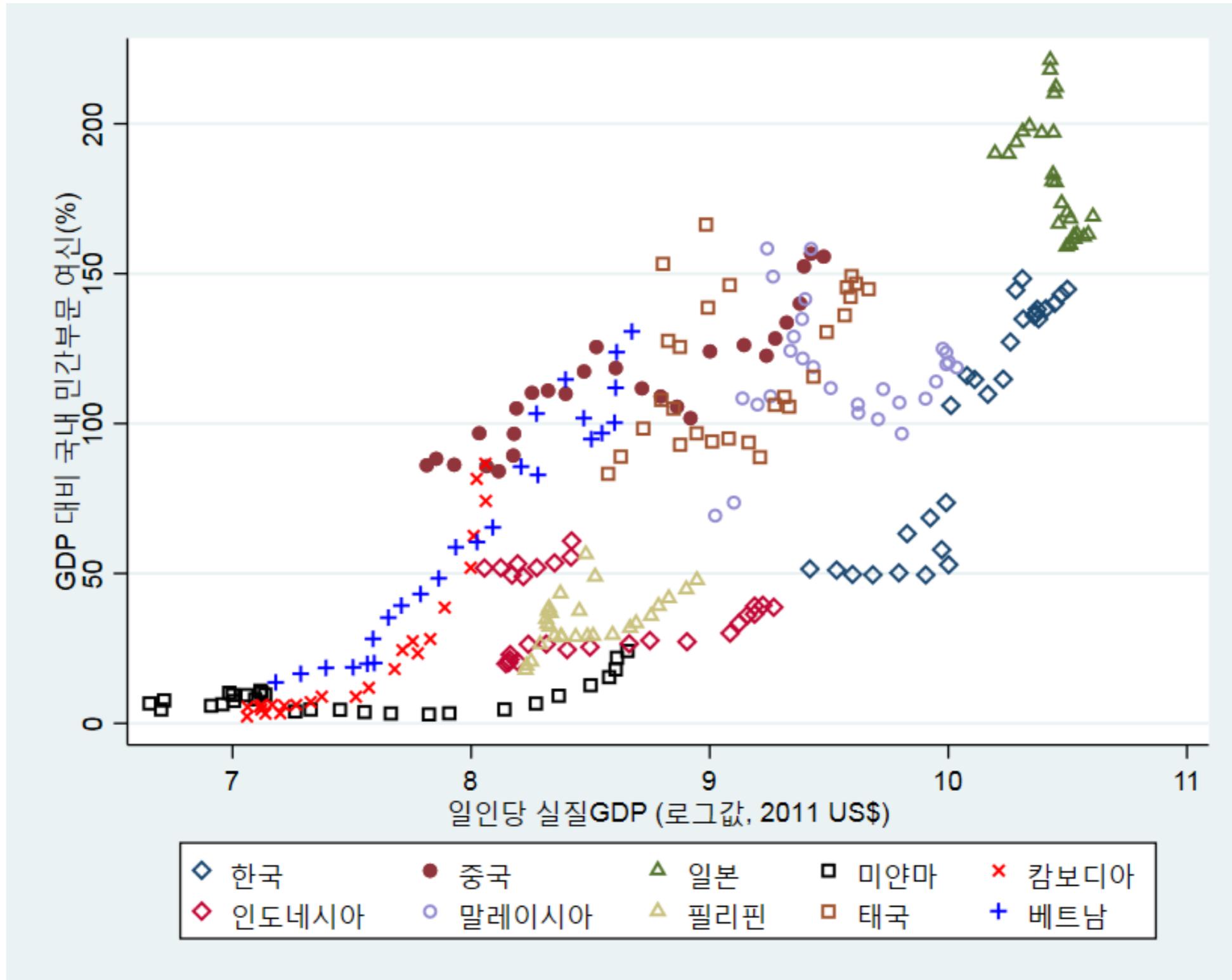
첨언 3: 신남방 지역 내 투자 다각화

- 신남방 지역 내 투자 다각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



첨언 3: 신남방 지역 내 투자 다각화

- 산업 및 금융 인프라 환경에서 국가별로 편차가 큼.



종합 결론

- 신남방 지역으로의 투자 증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
 -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높은 중국의존도는 우리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.
 - 특히 (i) high-tech 산업들이 활발하게 GVC를 활용한다는 점과 (ii) 해당 산업에서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높다는 점이 우려스러움.
- 국내 제조 환경을 감안할 때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의 이전과 무역다변화를 유도할 필요
 - 국내 환경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며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.
- 신남방 지역 내 투자 다변화를 위한 각 국가와의 맞춤형 경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필요